

2020년 6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이남윤(2236) / 제공일: 6월 29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올해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한 35만톤 예상

- 정부 수급대책 물량을 감안하면 생산량은 평년보다 감소하여 가격 상승 기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마늘 생산량은 35만톤으로 정부 수급대책으로 평년대비 과잉물량 4만 5천톤은 대부분 해소되어 가격 상승 예상

* 생산량(천톤) : (평년) 305 → ('19) 388 → ('20) 350(전년비 9.6%↓, 평년비 15%↑)

* 정부 수급대책 : (계획) 57천톤, (완료) 30천톤 (추진중) 27천톤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9.6% 감소하고 평년보다 15.0% 증가(4만 5천톤)한 35만톤으로 전망된다.

* 생산량(천톤) : (평년) 305 → ('19) 388 → ('20) 350(전년비 9.6%↓, 평년비 15%↑)

- 이번에 발표한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에서 841개소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실측한 결과이며, 마늘 생육기 후반 급격한 기온상승 등 영향으로 생산단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생산단수(kg/10a) : (평년) 1,239 → ('19) 1,400 → ('20) 1,381(전년비 1.4%↓, 평년비 11.5%↑)

- 정부는 2차례 마늘 수급안정 대책으로 평년대비 과잉물량 4만 5천톤보다 많은 5만 7천톤을 시장격리 중에 있다.

○ 농식품부는 6월 현재 정부 수급대책으로 3만톤이 시장격리되었으며, 정부·농협 수매, 수출 등 지속 추진으로 과잉물량 해소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□ 현재 마늘 산지 분위기는 2차례에 걸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, 스펀지 마늘, 2차 생장(별마늘) 등 생리장해, 녹병 등 병 발생 등으로 전년보다 생산단수가 감소함에 따라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○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는 1,800원/kg에서 2,300원/kg 까지 인상되었으며, 민간거래 가격도 2,400원/kg까지 상승하였다.

- 아울러, 경남 남해군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도 전년(2,500원/kg)보다 높은 3,000원/kg으로 결정(6월 24일)되었다.

○ 수확 후 건조 중인 대서종 마늘의 창녕지역 산지공판장(7월 1일 개장) 예상 경락가격은 전년 1,500원/kg보다 상승한 최저 2,300원/kg, 평균 2,500~2,600원/kg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.

○ 산지 거래가 미흡했던 의성지역 한지형 마늘도 크기가 작은 마늘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본격 거래가 시작 되는 7월 7일부터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.

□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“올해 마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.”고 밝히면서,

○ “마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가도 가능한 가격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산 출하하고, 산지공판장 출하 시에는 충분히 건조하고 표준규격에 맞게 잘 선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”